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돌려주겠다면 돈을 선물이었다고 한다면,
관계보다 약정과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항소 기각 · 반환 판결 유지

항소심 승소

투자금·임치금 합계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 유지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반환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은 돈이 증여였거나 반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설명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졌다는 결론은 달랐습니다. 해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환 판결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판결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과 당사자의 약정을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이 새롭게 내세운 설명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1심에서 인정된 반환 원금은 투자금과 임치금 합계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상대방 주장처럼 돈의 성격을 증여로 바꿔 볼 근거가 있는지,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였거나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증여와 채무 면제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의 핵심

친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돈까지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친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돈까지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해울은 항소심에서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을 지켰습니다.

- 반환을 요구하자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한다면?
-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한다면?
- 관계의 친밀함과 금전 약정을 구분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반환 판결을 지키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인정한 거래 관계와 반환 의무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증여·채무 면제 주장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임치금 **1억 3,500만 원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준 돈이었다고 대응하면 거래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례는 1심 승소 후에도 이어진 불복 절차에서 증여와 채무 면제 주장을 막고 반환 판결을 지킨 항소심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증여받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해율은 항소심에서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을 지켰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증여받은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해율은 항소심에서 1억 3,500만 원 반환 판결을 지켰습니다.

- 투자한 돈과 잠시 맡긴 돈이 함께 있다면?
-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 항소심에서도 기존 지급 판결을 지켜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